

咸安 防禦山 藥師三尊像에 관한 연구*

- 제작배경을 중심으로 -

池 江 伊

Ji Kangyi

한국문화연구원 학예연구원

I. 머리말

함안군은 경상남도의 중부지방에 해당하며 방어산은 함안군의 중심지인 가야읍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방어산의 해발고도는 약 400m이고, 산의 남쪽으로는 진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¹¹⁸⁾ 방어산의 정상부근에 있는 남향의 셰일(shale)질 암벽에¹¹⁹⁾ 약사삼존입상이 線刻되어 있는데 전체 암벽의 크기는 높이 약 590cm, 최대폭 약 700cm에 이른다. 여기에 높이 약 450cm의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를 배치하고 우협시의 오른팔 옆에는 총 43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현재 보물 제159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 불상 중 명문을 통해 그 제작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드문 실정에서 本像은 약한 암질로 인해 다소 손상은 입었으나 제작시기가 801년임을 알 수 있어 9세기 초기의 기준작으로서 중요한 불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사상에 있어서 중요성을 지닌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本像에 관한 先行研究로는 1977년 文明大의 『新羅下代佛教彫刻의 研究(I)』라는 단 1편의 논문만이 있다.¹²⁰⁾ 이 논문에서 최초로 본상의 概要와 양식적

* 본 연구는 2001년도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학술재단의 연구비에 의해 조성되었다. 또한 2003년 일본 동북대학 미학 미술사연구실 간행의 『미술사학』 24호에 기재된 것을 한글로 번역, 일부 수정한 것이다.

118) 행정구역상의 방어산 약사삼존상의 위치는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산 131번지이다.

119) 암질은 주로 회색 사질셰일과 자색 사질셰일로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으로 강한 호른펠스(hornfels)화 작용을 받아 자색 사질셰일은 판상을 나타내고 석회질을 띠는 부분도 있다(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 『방어산 마애불 보존 및 주변정비 기본조사연구』<경상남도 함안군, 2000, p.9>).

특징이 소개되었으며, 銘文 解釋과 더불어 制作연대인 801年 전후의 사회적 혼란과 그로 인한 질병이 제작계기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약사삼존상의 무릎 이하가 퇴적토에 매몰되어 있어 상 전체의 형태를 완전히 알 수 없었고, 더욱이 조상배경에 대해서도 8세기말부터 9세기초에 걸치는 시기의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구체적인 질병유행의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또, 명문내용은 질병치유보다 정토왕생을 기원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굴에 의해 명확히 알 수 있는 약사삼존상의 전체 형태의 소개와 함께, 그 특징을 고찰하여 제작시기가 명문대로 貞元 17年(801)인 9세기 초기의 작품인가를 양식적 특색으로부터 확인하고, 아울러 명문 해석을 통해서 조상배경을 추정하고자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불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함안군¹²¹⁾에 명문과 함께 거대 마애불이 造成된 것은 필시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함안군과 중앙과의 관계는 물론, 801년 당시인 애장왕대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본상의 조상목적 및 의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약사삼존상의 現狀 및 양식적 특징

1. 약사삼존상의 현상

약사삼존상은 폭 약 2.0~3.0cm, 깊이 0.5~1.5cm의 선각으로, <표 1> 암벽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다.(圖 1, 2)

본존은 정면을 향한 입상으로 頭部는 素髮이고, 肉髻와의 區劃線은 명확하다. 얼굴은 卵形이고, 신체와 의문선의 표현과는 달리 丸味가 나타나 특별히 얼굴 면을 다듬어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눈썹은 弧形이고, 눈과 입은 직선으로 표현되어 전체적으로는 근엄한 인상이다. 목의 선은 거의 없어서 三道가 가슴에 이르기까지 새겨져 있다.(圖 3)

大衣는 通肩으로 옷깃이 큰 U字形으로 되어 있어, 가슴이 넓게 보인다.

120) 文明大, 『新羅下代佛教彫刻의 研究(Ⅰ) -防禦山 및 實相寺 藥師如來巨像을 中心으로-』, 『歷史學報』73, 1977).

121) 현존하는 함안군의 불상의 예는 방어산 약사삼존상 문양 이외에 고려시대 초기작으로 추정되는 함안면 대산리 석불이 알려져 있다.

복부 이하는 결실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U字形의 주름이 연속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圖 4) 大衣 아래의 裙에는 직선의 주름이 양다리 외

K C I

<표 1> 방어산약사삼존상의 法量

(단위 : cm)

	우협시보살상	본존여래상	좌협시보살상
總高	332	450	335
最大幅	82	125	95
身部高	216	330	249
頭部高	61	69	58
頭部幅(耳~耳)	37	62	42
白毫(橫×縱)	3.5×5	3.5×5	5×7
臺座高	55	75	54
臺座幅	98	155	96

측에 모여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ㄴ字形의 衣文이 보인다. 印相은 오른손은 가슴까지 올려서 손바닥을 보이고, 왼손 역시 가슴부근까지 올려 이중의 선으로 뚜껑까지 표현된 큰 약호를 쥐고 있다.(圖 5)

발은 양 발꿈치를 붙였고, 대좌는 仰蓮의 연화좌로 큰 蓮弁 사이에 間弁을 나타내고 있다.(圖 6) 본존을 비롯한 협시는 모두 광배가 없다.

좌협시는 상반신을 본존으로 향한 측면상이다.(圖 7) 보관은 없고, 우협시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묶은 모습으로 추측된다. 눈썹과 눈이 치켜 올려져서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인상이다. 이마에는 백호와 같은 圓形이 있다.¹²²⁾ 목에는 2條의 선이 보이며, 그 아래에 弧形의 목걸이를 표현하고 있다.(圖 8)

천의의 주름은 큰 U字形으로 복부부근까지 내려갔고 그 아래는 결실되어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양팔에서 수직으로 내려간 천의는 무릎 부근에서 반전하고 있어서 우협시와 거의 같은 모습이다. 본존과 같이 裾은 직선의 衣文線으로 표현되었지만, 양 다리 부분에는 각기 半弧形의 주름을 이루어 양감이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있다.(圖 9) 印相은 양손을 가슴까지 올려 오른손은 손바닥을 보이고, 왼손은 손등을 보이고 있다.¹²³⁾ 발의 형태는 본존과 같고, 대좌도 본존과 같은 양련의 연화좌이지만 間弁은 없다.

우협시는 좌협시와 같이 본존을 향한 측면상이다.(圖 10) 卵形의 얼굴에

¹²²⁾ 문명대는 이마의 원형이 우협시보다 크기 때문에 아마 日光을 상징한 것이라고 한다(문명대, 전계논문, p.6).

¹²³⁾ 이러한 인상은 그 예가 드문 편이다. 그러나 단석산 신선사마애불상군 중 복면 바위의 삼존불은 모두 양손을 들어 서면의 본존불을 가리키고 있어 이와 상통하는 의미로 본존을 가리키기 위한 인상으로 추측된다.

이마에는 圓形이 있고,¹²⁴⁾ 눈썹과 눈은 弧形으로 표현하여 좌협시와 달리 부드러운 표정이다. 보관은 없고, 대신 머리카락을 높이 묶어 올린 형태이며 垂髮은 양 어깨에서 팔까지 걸쳐져 표현되어 있다. 목에는 삼도가 있고 그 아래에 역시 호형의 목걸이가 보인다.

어깨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천의는 양팔에 걸쳐지면서 복부 아래에서 이중의 U字狀을 이루고 팔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천의는 좌협시와 같이 무릎 부근에서 반전하고 있다.(圖 11) 裙의 주름 표현도 역시 좌협시와 같다. 印相은 양손을 올려 가슴 앞에서 합장하고 있으나 양 손등이 보여 사실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양련의 연화좌와 발의 표현은 모두 본존과 같다.

2. 양식적 특징

本像은 본존과 좌협시의 복부 아래에서 무릎 위까지의 부분과, 우협시의 무릎 부분이 훼손되어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가 결실되어 있다. 그렇지만 양식적인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지장이 없다. 즉, 본존은 양 협시가 어깨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크게 표현되어져 의도적으로 본존에 시선이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예는 삼국시대 말기의 경주 仙桃山 磨崖三尊立像¹²⁵⁾(圖 12)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 중반 이후로는 제작시기가 730년에서 760년으로 추정되는 경주 掘佛寺址 四面三尊立像과 8세기 후반작으로 추정되는 경주 斗垈里 磨崖三尊立像(圖 13)과 같이 협시의 像高가 본존의 어깨보다 위에 미치고, 삼존상의 전체적 비례가 알맞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상은 前述한 바와 같이 삼존상 전체 크기의 비례를 무시하여 본존만을 크게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9세기에 들어서 일어나는 양식적 후퇴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더불어 後述하는 것과 같이, 명문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본존은 협시에 비해 키가 크게 제작되었다. 그러나 신체가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길이는 매우 작고, 삼도가 가슴에까지 내려오며 손의 크

¹²⁴⁾ 문명대는 月光을 상징한다고 한다(문명대, 전계논문, p.8).

¹²⁵⁾ 이 상의 제작시기에 대하여 姜友邦은 7세기 중엽 즉 650년경으로 보고 있으며(『仙桃山 阿彌陀三尊大佛論』(『圓融과 調和』, 悅話堂, 1990, p.153)), 秦弘燮은 통일적후인 7세기 후반으로(『韓國의 石造美術』, 文藝出版社, 1995, p.351), 文明大는 통일신라 초기인 7세기 후반~8세기 초로(『磨崖佛』, 대원사, 1991, p.75) 보고 있다.

기가 얼굴의 크기와 거의 같다. 그러므로 본존 자체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왼손에 들고 있는 약호도 비교적 크고, 2줄의 선으로 뚜껑을 표현한 점으로 미루어 특히 약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²⁶⁾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의 약사여래상에서는 8세기 후반작의 보스톤미술관소장 금동약사여래입상(圖 14)과 같이 약호 뚜껑을 정확히 표현한 예가 있지만, 석조불에서는 그런 표현의 예가 없다. 다만 경주 掘佛寺址 東面약사여래좌상(圖 15)과 경주 남산 七佛庵의 동면약사여래좌상, 경주 남산 葦長溪 석조약사여래좌상과 같이 약호를 둥근 원형으로 표현한 예와 尙州 曾村里 석조약사여래좌상(圖 16), 남산 潤乙谷 석조약사여래좌상과 英陽 蓮塘洞 석조약사여래좌상과 같이 1줄의 선으로 표현한 예가 있다.¹²⁷⁾

이와 같이 약사여래의 지물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약호의 모양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일반적으로 약사불로 추정되는 사방불의 동면상¹²⁸⁾의 지물도 원형 또는 1조의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¹²⁹⁾ 이것은 아마 『藥師如來念誦儀軌』에서 약사여래의 지물이 藥器 또는 無價珠¹³⁰⁾라고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약사여래의 지물은 보주형과 약호형의 2개의 형태가 상정되며 특히 8세기 후반에는 보주형보다 구체적으로 약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³¹⁾ 그렇기 때문에 본상은 약호를 2조의 선으로 표현하였고, 이러한 예는 석불로서는 드문 경우로 아마 부조가 아닌 선각이라는 기법의 한계로 인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설명적 표현은 본존의 신체 비례에 비해 지나치게 큰 양 손과 양 귀가 정면에서 보이는 점,¹³²⁾ 합장하고 있는 우협시의 양 손등이 보이는 점, 삼존이 모두

126) 같은 예의 고려시대 불상으로는 牙山 坪村里 약사여래입상을 들 수 있다.

127) 이와 같은 예는 경주 남산 윤을곡마애삼채상 중, 동벽의 오른편 상과 동화사 삼층석탑출토 금동사리기의 사방불 중의 약사여래좌상에도 보인다. 또, 고려시대의 작례로서는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交里 마애약사여래좌상이 있다.

128) 金理那, 「慶州 掘佛寺址四面石佛에 대하여」,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일조각, 1989, pp.257~259).

129) 사면불의 동면상 중, 원형 지물의 예로서는 경주 굴불사지 동면약사여래좌상과 경주 남산 칠불암 동면약사여래좌상이 있고, 1조의 선으로 표현된 지물의 예로서는 진전사지 삼층석탑의 동면약사여래좌상을 들 수 있다.

130) 不空譯, 『藥師如來念誦儀軌』(『大正新脩大藏經』제19권 密教部 二) 「…安中心一藥師如來像如來左手令執藥器. 亦名無價珠. 右手令作結三界印. 一著袈裟結跏趺坐. 令安蓮花臺. 臺下十二神將. 八萬四千眷屬上首. 又令須蓮臺如來威光中. 令住日光月光二菩薩」.

131) 이와 같은 견해로 유근자 전개논문(p.83)과 金惠婉 「新羅의 藥師信仰 -藥師如來造像을 中心으로-」, 『千寬宇先生還曆記念韓國史論叢』, 正音文化社, 1985, pp.319~320), 조원영, 「新羅中古期 불교의 密敎的 성격과 <藥師經>」, 『釜大史學』23, 1999, p.18)이 있다.

양 발꿈치를 맞붙여 두발을 모두 보이게 표현한 점 등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상의 지물은 약호인 것을 강조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 통일신라시대의 삼존상 중에 양 협시의 이마에 원형을 표현한 예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상의 협시와 같이 이마에 원형이 보이는 것은 일광과 월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본상을 약사삼존상임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8세기대 통일신라 불상은 경주 굴불사지 西面아미타삼존불의 본존과 720년작인 甘山寺 石造阿彌陀如來立像(圖 17), 栢栗寺 金銅藥師如來立像¹³²⁾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깨 폭이 넓고, 당당한 자세에 얇은 法衣를 통해서 신체의 풍부한 양감을 표현하고 있다. 또 양 협시는 雁鴨池 출토의 金銅三尊板佛坐像(圖 18)을 비롯하여¹³⁴⁾ 경주 七佛庵 磨崖三尊佛 등에서는 정면을 향한 삼곡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8세기 후반작으로 추정되는 경주 斗垈里 磨崖三尊立像(圖 13)의 양 협시는 여전히 정면을 향하지만 좌 협시는 직립, 우협시는 두 다리를 약간 구부린 굴곡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시기부터 서서히 직립의 자세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諸像은 대부분 광배는 舟形舉身光이며 복련과 양련으로 이뤄진 연화좌가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상은 이와는 달리 신체가 長身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頭部에 어깨폭이 좁아 당당한 위풍이 느껴지지 않으며, 두꺼운 옷으로 인해 신체의 굴곡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양 협시는 측면을 향하며 직립하고 있고, 정면향으로 삼곡자세를 하는 8세기대와는 대조적인 새로운 9세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9세기 이후의 경주 骨窟庵 磨崖如來坐像(圖 19)과 경주 藥水谷 磨崖佛 등에서는 옷주름이 일률적으로 형식화한 것에 대해 본상의 의문선은 변화를 가져 자연스러운 질감이 전해지는 표현이다. 즉, 본존은 두꺼운 옷이기 때문에 상반신의 양감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반신에는 삼존이 모두

132) 문명대, 전계논문, p.20.

133) 현재 양손이 결실되어 어떤 인상을 취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삼국유사의 분황사 약사여래입상과 비견되는 통일신라시대 유일의 대형금동입상이다(姜友邦,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 <대원사, 1995, pp.315~316>).

134) 이 상은 『한국미술오천년전』에서는 8세기 전반, 『5000 Years of Korean Art』에서는 8세기 중반으로 되어 있는 등 종래는 8세기 작으로 추정하였으나 김리나는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일조각, 1989, pp.169~172)에서 7세기 말의 작품으로 주장하고 있다. 안압지에서는 이 상과 함께 調露2年(680)銘의 寶相華文博이 출토된 사실로 미루어 7세기 말의 작품으로 판단되며 8세기대 협시의 삼곡자세의 前形을 보여주는 상이라 여겨진다.

양 다리에 半弧形의 주름을 표현하여 양감을 충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 본존의 裙에 남아 있는 고식의 ㄱ字形 주름¹³⁵⁾과 양 협시의 天衣가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다. 9세기대의 연화좌와 광배는 장식적인 문양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지만,¹³⁶⁾ 본상은 무문의 양련만으로 이뤄진 연화좌이고, 광배는 없어서 장식성을 배제한 간략한 표현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본상은 9세기 중반을 내려가지 않는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古式과 新式이 공존하는 9세기로의 과도기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문의 801년은 본상의 제작시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Ⅲ. 명문해석

다음으로 본상에 있는 명문을 해석하고자 한다. 필자의 實見에 의한 판별된 명문은 전부 10행으로 字經이 약 5.0~7.0cm의 43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全文은 다음과 같다.¹³⁷⁾(圖 20)

135) 大西修也는 簞項里 여래입상의 裙이 신라 석불상에서 예가 많은 직선적 의문이 연속되는 裙이며 아직 그곳에 古式인 ㄱ字形文이 남아 있는 것으로 연대추정의 실마리로 삼아 그 제작시기를 석굴암보다 이른 8세기 중반으로 보았다(大西修也, 『簞項里 廢寺出土의 石造如來像의 復原과 造成年代』, <『考古美術』125, 1975, pp.22~24>).

136) 유마리, 『경주남산 9세기 마애불상의 고찰』(『신라문화』10·11, 1994, p.16).

137) 지금까지 방어진 약사삼존상의 명문을 실은 책은 다음과 같다.

朝鮮總督府 編,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書 咸安 上』(1917, p.313)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 上』(亞細亞文化社, 1976)

許興植 編, 『韓國金石全文 古代篇』(亞細亞文化社, 1984)

黃壽永 編, 『韓國金石遺文』(一志社, 1985, p.252)

秦弘燮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 三國時代~高麗時代』(一志社, 1987, p.313)

金煥泰, 『韓國佛教金石文考證 Ⅰ 三國新羅時代佛教金石文考證』(民族社, 1992, p.118)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p.303~304)

논문으로는 文明大의 전계논문과 유근자의 전계논문이 있다. 이 중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書』와 『朝鮮金石總覽』은 결자가 많으며 『韓國金石全文』과 『韓國美術史資料集成』, 문명대 전계논문과 유근자의 전계논문은 그 내용이 같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전문은 필자의 현지에서 조사한 명문을 중심으로 하고, 『韓國佛教金石文考證』과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文明大의 전계논문을 참고로 하였다.

	1	2	3	4	5
①	成 ¹³⁸⁾	人	弥	刀	秦 ¹³⁹⁾
②	貞	元	十	七	
③	年	辛	巳		
④	三	月	十	六	日
⑤	鴻 ¹⁴⁰⁾	巖	仏		
⑥	成	記	願	旨	
⑦	一	父	子	王	又
⑧	△ ¹⁴¹⁾	王	日	弥 ¹⁴²⁾	
⑨	二	父	母	弥	又
⑩	一	切 ¹⁴³⁾	衆	生	△

제①행의 「成人」은 官人, 즉 「士」를 말한다고 생각된다.¹⁴⁴⁾ 명문의 앞 문장에 나오는 이름은 통일신라시대 대부분의 명문에서는 工人보다 願主를 나타내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癸酉銘 阿彌陀三尊碑像(673년)과 癸酉銘 三尊千佛碑像(673년), 감산사 미륵보살상(719년), 同 아미타여래상(720년)과 石南巖寺 石造毘盧遮那佛像(766년) 등을 들 수 있다.¹⁴⁵⁾

138) 『朝鮮金石總覽』과 『韓國金石全文』(이하 약칭하여 『全文』)에서는 「我」로 하고 있으나 이외의 책에서는 「成」이고, 실전에 의해서도 「成」으로 확인하였다.

139) 『大正六年報告書』은 「業」, 『全文』은 「秦」, 『韓國佛教金石文考證』은 「奉」,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에서는 「秦」로 보고 있다.

140) 『大正六年報告書』와 『全文』에서는 「鴻」자로 보고 있으나 「鴻」자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141) 문명대는 「戔」으로 보고 있지만 필자가 조사했을 때는 암벽의 결락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다.

142) 문명대는 「弥」또는 「弘」으로 보고 있지만 조사한 결과, 「弥」로 판단했다.

143) 『全文』만이 「福」자로 보고 있다.

144) 成人은 사회의 구성인인 어른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청인 사대부 및 「士」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諸橋轍次, 『大漢和辭典 5』, 昭和31年). 따라서 여기서는 명문의 문맥상, 官人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145) 『癸酉銘 阿彌陀三尊碑像銘』(673년) 「全氏△△ 述況△△…同心敬造 阿彌陀佛像觀音大世至像△…全氏三△△等△五十人知識共…」

『癸酉銘 三尊千佛碑像銘』(673년) 「造之香徒名△彌次乃眞 牟氏舍上生舍△仁次小舍△ 宣舍贊不小舍貳使小舍△△小舍△△等二百五十人」

『甘山寺 彌勒菩薩像銘』(719년) 「重阿浪金志誠 奉爲亡考仁章一吉浪…敬造甘山寺一所 石阿彌陀像一軀…」

『甘山寺 阿彌陀如來像銘』(720년) 「重阿浪金志全…故奉爲國主大王 伊浪 元公 亡考亡女妣…仍造石阿彌陀像一軀…」

『石南巖寺 石造毘盧遮那佛像銘』(766년) 「釋法勝 法緣 二僧并 內奉過去爲飛賜豆溫哀郎願

한편, 확실하게 工人名이 남아 있는 예로서는 皇福寺 金銅舍利函記(706년), 聖德大王神鍾銘(771년)과 蓮池寺鐘銘(833년), 竅興寺鐘銘(856년)이 있다. 공인명은 모두 명문의 제일 끝 부분에 기록하고 있고 人名 앞에 「鑄鍾」, 「匠」 등을 넣어 실제로 만든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다.¹⁴⁶⁾ 따라서 본상의 명문에 있는 「成人」은 공인명이 아니라 願主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弥刀耒」가 있다. 통일신라기의 명문은 이름을 쓴 후, 官等を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⁴⁷⁾ 그러므로 「弥刀」는 이름이고, 「耒」는 官等名임을 알 수 있다.¹⁴⁸⁾ 「耒」는 奈末¹⁴⁹⁾의 耒를 誤記하고, 「末」자를 생략한 경우,¹⁵⁰⁾ 또는 奈末을 한 글자로 합쳐서 표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는 후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본 명문에선 誤記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통일신라시대의 다른 명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大舍, 乃末 등의 관등명을 한 글자로 합쳐서 나타낸 경우가 다수 보이기 때문이다.¹⁵¹⁾

제②~④행의 「貞元十七年辛巳三月十六日」(801년)은 年紀이며, 제⑤행의 「鴻巖仏」은 큰 바위의 佛을 의미한다.

爲 石毘盧遮那佛 成內…」.

146) 『皇福寺 金銅舍利函記』(706년) 「… 匠 李生 閔溫」

『聖德大王神鍾銘』(771년) 「… 大曆六年歲次辛亥 十二月十四日 鑄鍾大博士 大奈麻 朴從鑑 次博士 奈麻 朴賓奈 奈麻 朴韓味 大舍 朴負缶」

『蓮池寺鐘銘』(833년) 「… 成博士 安海哀大舍 哀忍大舍」

『竅興寺鐘銘』(856년) 「… 大匠大奈末 溫衾」.

147) 이름 다음으로 관등명을 쓴 경우는 癸酉銘 阿彌陀三尊佛碑像(673년), 景德王代 華嚴經寫經跋文(755년), 永川 舊堤碑貞元修治碑(798년) 등 그 예가 대단히 많으며 이는 통일신라 명문 형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李基白,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 寫經 關與者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83, 1979, p.129>), (金昌鎬, 『癸酉銘阿彌陀三尊佛碑像의 銘文』, <『新羅文化』8, 1991, p.141 註46>).

148) 고신라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姓없이 이름만 표기된 인명표기에서 이름이 한 글자로 표기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金昌鎬, 『永川 舊堤碑 貞元十四年銘의 再檢討』, <『韓國史研究』43, 1983, p.123>). 또, 관등명은 두 글자를 합쳐 한 글자로 나타낸 경우가 많으므로 「弥刀」는 이름이다.

149) 신라의 총 17관등 중 11관등에 속하는 奈末은 그 표기를 奈麻 또는 乃末로 나타내기도 한다.

150) 관등명인 奈末의 표현에서 뒤의 「末」자를 생략한 예는 『景德王代 華嚴經寫經跋文』에서 「… 經心匠大京 能吉奈麻 弓古奈 屎烏大舍 …」과 같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奈末뿐만이 아니라 관등명 「舍知」에서 「知」字의 생략도 다음과 같이 보인다. 「… 丁得奈麻 光得舍知 豆烏舍 …」.

151) 『癸酉銘 阿彌陀三尊佛碑像文』의 「… 眞武查 木△查願 与次乃末 …」, 『景德王代 華嚴經寫經跋文』의 「… 仁年大舍 屎烏大舍 仁節查 …」에서와 같이 「大舍」를, 798년에 파손된 청제비를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貞元十四年銘 永川 舊堤碑文』에서는 「… 節所內使上干年柒 … 玉純柒 …」와 같이 「乃末」을 한 글자로 합친 예가 각각 보인다.

제⑥행의 「成記」는 「만들어 기록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 「願旨」는 「원하건대」의 의미이다. 이후 造像의 이유가 쓰여져 있다. 제⑦행의 「첫째 부자와 과」로 해석되며, 801년 당시 왕은 哀莊王으로, 아직 14세이며 더욱이 애장왕은 805년에 왕후를 책봉하기 때문에 이 때 아들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¹⁵²⁾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父子王은 이미 죽은 先王인 昭聖王과 그의 아들인 哀莊王을 가르킨다고 생각된다.¹⁵³⁾

제⑧행의 「△王日弥」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¹⁵⁴⁾ 제⑨행은 「둘째, 부모와」에서 「父母」뒤의 「弥」字는 당시 주로 사용된 吏讀文¹⁵⁵⁾ 표현의 하나로 연결조사로 추측된다.¹⁵⁶⁾ 제⑩행의 「일절중생」과 그 다음 글자는 알 수 없다.¹⁵⁷⁾ 따라서, 명문의 내용은 본상이 願主인 「弥刀」라는 인물에 의해¹⁵⁸⁾ 801년 3월 16일에 소성왕과 애장왕, △王日弥, 그리고 父母와 一切衆生을 위해 제작하였던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은 특별한 질병치유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유명 아미타삼존비상명(673년)과 계유명 삼존천불비상명(673년), 감산사 미륵보살명문(719년) 등을 참고한다면,¹⁵⁹⁾ 왕을 비롯하여 부모, 중생에 이르기까지의 정토왕생을 기원한 내용이라

152) 『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 第十 哀莊王條) 「六年春正月 封母金氏爲大王后 妃朴氏爲王后 …」.

153) 문명대는 애장왕의 父王을 元聖王으로 잘못 보고 있다(문명대, 전계논문, p.23).

154) 문명대는 「戮王日弥」, 「戮王日弘」은 인명임이 틀림없으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문명대, 전계논문, p.23).

155) 吏讀란 漢字를 빌어 우리말을 기록하는 借字表記文으로 문장의 구성상 필요에 의해 순우리말을 사용해야 할 때 한자를 빌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南豐鉉, 『吏讀研究』 <태학사, 2000, pp.11~14>).

156) 『石南巖寺 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766년)의 「… 若見內人那 向尙頂禮爲那 …」에서 「尙」자는 「弥」자의 略體字로 이두문의 ㅅ을 표기하는데 사용되는 글자이며, 그 뜻은 「-(하)여」(곰)」이다. 이와 같은 예는 『景德王代 華嚴經寫經跋文』에도 보인다(南豐鉉,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佛 造像記의 吏讀文 考察』 <『新羅文化』5, 1989, pp.7~8>).

157) 제⑩행이 암벽의 끝부분까지 선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행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58) 현재 이 「弥刀」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 그러나 이름만 표기되었다하더라도 그 신분이나 관등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无盡寺鐘銘』(745년)의 「…思仁大角干爲賜…」에서 볼 수 있듯이 제1관등인 大角干的 신분에도 불구하고, 「思仁」이라는 이름만을 나타낸 경우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弥刀」는 관등이 奈末인 점으로 미루어 신분이 5두품 이상의 일반인 또는 진골 이하의 귀족, 왕족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로 추정된다.

159) 『癸酉銘 阿彌陀三尊碑像銘』(673년) 「…同心敬造 阿彌陀佛… 十人 知識共國王大臣 及七世父母含靈等願敬造寺知識名記… 太△△願 道作公願…」
『癸酉銘 三尊千佛碑像銘』(673년) 「…徒釋迦及諸佛菩薩像造石記 是者爲國王大臣及七世父母法界衆生故敬造之 香徒名…」

할 수 있다. 또, 국가에 의한 제작이 아닌 「弥刀」라는 관리의 개인적인 조상으로 추정된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806년에 새로운 사찰의 창건과 화려한 불교행사를 금지하는 법령이 내려졌는데¹⁶⁰⁾ 이는 결국 개인적인 佛事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鴻巖仙」, 「父子王」과 같이 왕에 대한 문구가 있는 점이다. 홍암불은 앞서 말한 대로 큰 바위의 불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鴻」이라는 글자는 皇帝의 業을 나타내는 「鴻業」¹⁶¹⁾과 天子의 御名을 말하는 「鴻號」,¹⁶²⁾ 왕의 넓은 마음을 나타내는 「鴻休」,¹⁶³⁾와 같이 특히 왕과 관련된 단어의 접두어로 쓰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홍암불은 역시 왕을 의식해서 만든 불상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상명문의 문장구조는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으며¹⁶⁴⁾ 개인적으로 부모의 추선을 위한 조상에도 패턴화된 문장을 사용하여 왕에 대한 형식적인 문구가 있기 마련이고, 그 예는 金志誠의 미륵보살상명문을 들 수 있다.¹⁶⁵⁾ 그러나 형식적이 아닌 실제로 왕을 위한 불사의 예는 대단히 많으며, 예를 들면 信忠의 景德王을 위한 斷俗寺 창건(763년),¹⁶⁶⁾ 왕실에서의 皇福寺塔 조성(692년),¹⁶⁷⁾ 奉德寺 창건(738년)¹⁶⁸⁾ 등이 그것이다.

『甘山寺 彌勒菩薩像銘』(719년) 「…資國主大王 履千年之遐壽延萬福之鴻…一切衆生同出六塵咸登十號縱使城…」.

160) 『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 第十 哀莊王條) 「七年春三月 下教禁新創佛寺 唯許修葺 又禁以錦繡爲佛事 金銀爲器用 宜令所司 普告施行 …」.

161) 『後漢書』 肅宗紀에 「皇帝幼冲 承統鴻業」과 같이 중국 고서에서도 「鴻業」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162) 『韓愈爭臣論』에 「致吾君於堯舜熙鴻號於無窮也」라 하여 「鴻號」란 말이 보인다.

163) 『甘山寺 彌勒菩薩像銘』의 「延萬福之鴻休」와 같이 「鴻休」가 쓰여졌다.

164) 중국 北朝의 造像銘을 보면 2가지의 문장구조로 나뉘어 패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의 문장구조는 紀年・月日, 身分, 造像主, 發願의 動機・經過, 奉爲, 尊像, 願目의 순서이고, 두 번째는 佛法의 意義와 造像의 意味, 造像主, 發願의 動機・經過, 奉爲, 尊像, 願目, 紀年・月日의 순서를 이룬다(佐藤智水, 「北朝造像銘考」, 『史學雜誌』86-10, 1977, pp.4~5).

165) 『甘山寺 彌勒菩薩像銘』(719년) 「開元七年己未 二月十五日 重阿浪金志誠 奉爲亡考仁章一吉浪…敬造甘山寺一所 石阿彌陀像一軀 石彌勒像一軀…上資國主大王 履千年之遐壽 延萬福之鴻休 …」.

166) 『三國遺事』(卷五 第八 避隱 信忠掛冠條) 景德王 王卽孝成之弟也 二十二年癸卯 忠與二友相約 掛冠入南岳…爲王創斷俗寺居焉 願終身丘壑 以奉福大王 王許之留眞在金堂後壁是也 …」.

167) 『皇福寺 金銅舍利函記』 「神文大王…天授三年 壬辰七月二日乘天 所以神聖太后 孝昭大王 奉爲宗廟聖靈 禪院伽藍 建立三層石塔 …」.

168) 『三國遺事』(卷三 第四 塔像 皇龍寺鐘芬皇寺藥師奉德寺鐘條) 「奉德寺乃孝成王開元二十六年戊寅 爲先考聖德大王奉福所創也 …」.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지방에서 행해진 불사 중 형식적으로 쓰여진 왕에 관한 문구를 전혀 볼 수 없는 점이다.<표 2> 그럼에도 불구하고

K C I

<표 2> 801년전후의 지방에서 행해진 佛事

時期	願主	佛事內容	銘文內容
752	普衆과 有休大舍宅夫人 과 그 外	上院寺鍾鑄造	開元十三年乙丑 三月 八日 鐘成記之…□□普衆 都 唯乃孝□ 直歲道直 衆僧 忠七 冲安 貞應 旦越有休 大舍宅夫人 休道里 德香舍上 安舍 照南宅匠仕□大 舍
754	緣起法師	華嚴經 寫經	天寶十三載甲午八月一日初乙未載二月十四日 一部 周了成內之成內 願旨者皇龍寺緣起法師爲內賜第一 恩賜父願爲內 彌第二法界一切衆生成佛道欲爲以成 賜乎經成內
766	豆溫哀郎과 僧侶法勝과 法緣	石南巖寺 石造毘盧遮那 佛造像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 釋法勝 法緣 二僧 并 內奉 過去爲飛賜豆溫哀郎願爲 石毘盧遮那佛 成內…願請 內者 豆溫 愛郎靈神賜那二僧亦那…逕所方處一切衆 生 一切 皆三惡道業滅你 自毘盧遮那是亦覺 去世爲 你誓 內之
799	官人長珍大舍 外	龍鳳寺 磨崖立像造成	貞元十五年己卯四月日仁符 □佛願大伯士元烏法師 □香徒行官人長珍大舍
801	彌刀	防禦山 藥師三尊佛 造像	成人彌刀 奉 貞元十七 年辛巳 三月十六日 鴻巖仏 成 記 願旨 一父子王又 □王日弥 二父母弥又 一切衆生 □
804	仁近大乃末과 紫草里와 僧侶有情 外	禪林院鍾鑄造	貞元廿年甲申 三月 廿三日 當寺鍾成內之 古尸山郡 仁近大乃末紫草里 施賜乎…十方旦越勤爲成內在之 願旨是者 法界有情皆佛道中到內去 誓內 時寺聞賜 主 信廣夫人君
833	惠門法師와 卿村主三長及干 外	蓮池寺鍾鑄造	太和七年 三月日 靑州蓮池寺 鐘成內節…成典和上 惠門法師 □惠法師 上坐 則忠法師 都乃 法勝法師 卿村主 三長及干 朱雀大 作韓舍 寶清軍師 龍年軍 師
856	清嵩法師와 含梁萱榮 外	竅興寺鍾鑄造	大中十年 丙子 八月 三日 竅興寺 鐘成內矣…初此願 起在清嵩法師 光廉和上 願爲內木者 種種施賜人乃 見 聞隨喜爲賜人乃 皆無上菩提 成內飛也 節縣令含 梁萱榮□□…上村主 三重沙干
867	僧侶彦傳	鷲棲寺塔造成	釋彦傳 母親 諱 明端 考 伊浪 金亮宗公之季女 親自 發 弘誓 專起 佛塔 已感 淨土之業 兼利 穢國之生 孝順 此志 建立 茲塔 在佛舍利 十粒作 无垢淨一 壇…大唐 咸通八年 建

고, 본상의 명문에는 특별히 왕을 지칭하는 문구가 있고, 바꿔 말하면 본상의 제작목적이 왕을 위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⁶⁹⁾ 따라서 다음에 조상배경을 고찰하여 본상의 조상목적 및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IV. 造像背景에 대하여

1. 咸安郡과 中央과의 관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상은 지방의 불상이지만 명문에 왕에 대한 문구가 있는 점이 주목되었다. 그럼 이러한 불상이 제작된 함안군은 어떤 특성을 가진 지방이며, 당시의 지방 관리가 거대 마애불을 조성할 만큼의 입장이었는가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咸安郡에 대한 기사를 三國史記를 통해 살펴보면, 함안군에는 十停¹⁷⁰⁾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十停은 통일신라시대 지방의 군사조직으로 九州에 각 一停을 배치하고, 그 중 漢州는 면적이 넓어 二停을 배치하여 전국의 10개소에 설치되었다. 十停은 각각 주의 정치적, 경제적인 중심 지역에 근접한 군사적 지방통치의 거점이 되었다.¹⁷¹⁾

또, 원성왕 1년(785)에 처음으로 중앙 또는 지방의 불교교단을 통제, 감독하기 위해 국가가 임명하는 승려의 관직인 僧官¹⁷²⁾이 설치되었다. 당시, 전국의 군, 현은 450개소이고,¹⁷³⁾ 그 중 군은 120여 개소이다.¹⁷⁴⁾ 이러한 郡 중에서 郡統이라는 승려가 배치되는 곳은 불과 18개소이며,¹⁷⁵⁾ 855년에 창건된 『昌林

¹⁶⁹⁾ 이 점에 대해서는 유근자도 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유근자, 전계논문, p.81).

¹⁷⁰⁾ 『三國史記』(卷四十 雜志 第九 職官 下條) 「十停或云三千幢…五曰召參停」, 『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 第三 地理 一條) 「咸安郡…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玄武縣 本召參縣 景德王改名」.

¹⁷¹⁾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1 古代篇』(一潮閣, 1982, p.343).

¹⁷²⁾ 『三國史記』(卷四十 雜志 第九 職官 下條)에 「至元聖王元年 初置僧官」이란 기사가 보이는데 여기서의 승관은 僧政機構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李錫勳, 『新羅 僧官制의 成立과 機能』, 『釜大史學』14, 1990, p.17>).

¹⁷³⁾ 『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 第三 地理 一條) 「九州所管郡縣 無慮四百五十」.

¹⁷⁴⁾ 통일신라시대에는 전국에 117개 내지 120개소의 郡과 293개 내지 305개소의 縣이 있었다(金義滿, 『新羅 統一期 地方社會의 再編과 村主의 身分』, 『新羅文化』8, 1991, p.145>).

¹⁷⁵⁾ 『三國史記』(卷四十 雜志 第九 職官 下條) 「至元聖王元年 初置僧官…國統一人…州統九人 郡統十八人」.

寺無垢淨塔』의 명문에는 造塔 時 참여한 사람들 중, 함안군의 군통의 이름이 보여 여기에도 군통이 파견된 것을 알 수 있다.¹⁷⁶⁾ 군통에는 중앙 사원의 승려가 임명되고, 필요에 의해 각 지방 사원에 파견된 것이 이미 지적되었다.¹⁷⁷⁾ 그러므로 王京의 창립사탑 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함안 군통도 王京 소재의 사원에 거주하면서,¹⁷⁸⁾ 담당함 함안군에 필요에 의해 파견되어져 사무를 관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군통이 배치되었던 함안군은, 당시 중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거점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함안군이 6세기경에 신라에 의해 합병되어져,¹⁷⁹⁾ 신라가 삼국통일을 달성한 후에도 계속하여 군사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지방과 중앙과의 관계, 더욱이 지방에 파견된 관리의 정치적 위치 및 지방 귀족의 권력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 이전인 591년에 건립된 『南山新城碑』의 碑文에는 중앙에서 지방관으로 파견된 함안군의 郡太守의 이름이 보이므로¹⁸⁰⁾ 통일이전부터 함안군은 중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지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에서의 지방관 파견과 통일 이후, 귀족들의 지방으로의 이주는 갑자기 넓어진 영토의 관리를 위한 국가의 의도적인 정책이었다.¹⁸¹⁾ 이렇게 지방에 정착한 귀족들은 자

176) 『昌林寺 無垢淨塔誌』(855년) 「... 專知 修造僧 康州 咸安郡統 教章」.

177) 『中初寺 幢竿石柱記』(827년)의 『節州統皇龍寺恒昌和上...』과 『蓮池寺鐘銘』(833년)의 『節州統皇龍寺覺明和上...』에서 알 수 있듯이 『節』은 때를 의미하는 吏讀이므로 節州統이란 佛事를 행할 때의 州統이란 의미이다. 그 다음, 주통이면서도 해당 주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경주에 있는 황룡사 소속의 승려임을 밝힌 점을 미루어, 역시 필요할 때마다 중앙에서 해당 주에 주통을 임시로 파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南同信, 『新羅의 僧政機構와 僧政制度』, <『韓國古代史論叢』9, p173>).

178) 주 60)의 명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의 州統과 郡統은 모두 황룡사 소속 승려로 임명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南同信, 前掲書, p.171).

179) 신라가 함안을 병합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신라가 창녕을 병합한 후, 순수비를 세운 진흥왕 22년(561)에는 완전히 복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함안군 城山山城의 발굴조사 결과에도 나타난다.

180) 『南山新城碑文』(591년)의 『阿良邏頭 沙喙 音乃古 大舍』란 사실을 통해 阿良邏郡의 太守가 王都沙喙에 속하면서도 京位인 『大舍』를 가지는 王京人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에서 지방관으로서 파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村上四男, 『朝鮮古代史研究』<開明書院刊, 昭和52年, p.305>). 또, 阿良邏는 『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 第三 地理 一條) 『咸安郡 法興王以大兵滅阿尸良國 一云 阿那加耶 以其地爲郡 景德王改名 今因之』에서와 같이 함안군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181) 『三國史記』(卷四十 雜志 第九 職官 下條) 『外位 文武王十四年 以六徒眞骨出居於五京九州 別稱官名 其位視京位』.

신의 세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의 지방세력과 결합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지방세력의 증대를 촉진하게 되었다.¹⁸²⁾ 하지만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중앙의 왕에까지 전달되었던 사실¹⁸³⁾들을 통해 지방에 거주한 諸 귀족 및 관리는 중앙을 무시한 독자적인 세력을 펼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앙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혜공왕 3년(767)의 대란 때 王都를 비롯한 전국 5道, 州·郡의 96명의 角干¹⁸⁴⁾이 서로 싸웠다¹⁸⁵⁾고 한 것으로 통일신라중 대말기의 지방 거주 귀족의 수와 세력을 짐작할 수 있다.

하대가 시작되면서 중앙집권의 권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각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원성왕의 장례 시 많은 민중들이 모여 참여했던¹⁸⁶⁾ 만큼 下代로 진입하였다고 하여 중앙의 통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백성들의 지지 또한 컸음을 추정할 수 있다.¹⁸⁷⁾

한편, 하대에 지방에 파견된 중앙 관리들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귀족이 지방관리로 파견된 예와 왕족이 지방관리로 파견된 2가지의 예를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경덕왕 4년(745)에서 9년까지 中侍職을 맡았던 金大城의 아들인 金順憲이 全州都督으로 있으면서 왕실의 華嚴經寫經에 참여하고 있는 예¹⁸⁸⁾를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憲德王 6년(814)에 武珍州의 都督이었던 金憲昌¹⁸⁹⁾이 侍中이 된 경우¹⁹⁰⁾와 興德王 3년(828)에 武州의 都督이었던 金陽이 이후 시중이 된 예,¹⁹¹⁾ 『昌林寺無垢淨塔文』에

182) 李基東, 『新羅 衰亡史觀의 概要』(『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p.129).

183) 『三國史記』(卷四十八 列傳 第八 向德條) 「... 鄉司報之州 州報於王 王下教 賜租三百斛宅一區 口分田若干 命有司立石紀事 以標之 ...」.

184) 角干은 신라의 총관등 17관등 중, 제 1관등의 명칭으로, 伊伐浪 또는 舒發翰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다.

185) 『三國遺事』(卷二 第二 紀異 惠恭王條) 「至二年丁未...七月三日 大恭角干賊起 王都及王道州郡并九十六角干 相戰大亂」.

186) 『崇福寺碑文』(896년) 「奉爲烈祖元聖大王園陵...泊貞元戊寅年冬...其改創紺宇 則有緣之衆相率而來 張袂不風 植錫無地 霧市奔趨於五里 雪山和會於一時 至於撤瓦抽椽 奉經戴像 迭相授受 競以誠成 役夫之走步未移 釋子之宴居已就」.

187) 朴南守, 『統一新羅 寺院成典과 佛事의 造營體系』(『東國史學』28, 1994, p.45).

188) 定康王 1년(886)에 先王인 憲康王의 追福을 위해 화엄경을 사경했다(崔致遠, 『華嚴經社會願文』<『韓國佛教全書 4』, 東國大出版部, 1982, p.647>) 「... 奧有上宰舒發韓新羅官名金公林甫 國戚重臣 蘇判官名金一順憲等 或兼金瑞彩 或盤石貴宗高標廊廟之珍」.

189) 太宗武烈王의 6代孫인 金周元의 아들이다.

190) 『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 第十 憲德王條) 「五年春正月 以伊浪憲昌爲武珍州都督...六年秋八月 武珍州都督憲昌入爲侍中 ...」.

191) 『三國史記』(卷四十四 列傳 第四 金陽條) 「金陽 字魏昕 太宗大王九世孫也...興德王三年爲固城郡太守 尋拜中原大尹 俄轉武州都督...是爲文聖王追錄功...轉侍中兼兵部令 ...」.

왕의 從叔, 從弟인 지방의 諸縣令이 造塔에 참여하고 있는 예¹⁹²⁾와 元聖王의 6代孫인 金立言이 憲康王때에는 鄉令이었던 사실¹⁹³⁾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를 미루어 9세기이후, 지방관리의 지위가 중앙의 관리에 비해 특별히 낮았다고는 보기 힘들고 오히려 지방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왕족이나 중앙의 귀족이 지방으로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히 중요한 군사적, 정치적 위치를 차지하는 함안군이라는 지역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왕을 위하여 造像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 각 지방에서 여러 가지 佛事가 행해지고 있었으며, 예를 들면, 보림사 비로사나불상(858년)의 경우, 지방관리가 조상하기 전에 왕에게 허가를 구한 후, 제작했듯이 지방의 불사에 왕이 직접 관여한 예가 있다.¹⁹⁴⁾ 또, 745년에 만들어진 無盡寺鐘¹⁹⁵⁾은 당시 上大等¹⁹⁶⁾이었던 金思仁¹⁹⁷⁾이 지방¹⁹⁸⁾에서 發願하여 鑄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지방의 관리만이 그 지방에서 불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관리도 지방에 가서 직접 불사를 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지방 관리가 중앙의 불사에 참여하는 경우, 또 仁陽寺와 같이 지방 사찰 건립에 중앙의 사찰로부터 재력을 지원 받은 일¹⁹⁹⁾도 있어 지방이지만 중앙과의 부단한 교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192) 『昌林寺 無垢淨塔誌』(855년) 「… 宣修造塔使 從弟 舍知行 熊州 祁梁縣令 金銳…從叔 行 武州長史 金繼宗…從叔 新受康州 泗水縣令 金勳榮」.

193) 『鳳巖寺 智證大師塔碑文』(893년) 「… 妙選近侍中可人 諱陵昆孫立言爲使 …」.

194) 『寶林寺 毘盧舍那佛造像銘』(858년) 「當成弗時 釋迦如來入滅後 一千八百八年耳 此時 情王 卽位 第三年也 大中十二年戊寅七月十七日 武州長沙副官 金蓬宗 聞奏 情王 △八月 廿二日 勅下令 △躬作不 覺勞困也」.

195) 『無盡寺鐘銘』(745년) 「天寶四載 乙酉 思仁大角干 爲賜 夫只山村 無盡寺鍾成 …」.

196) 상대등은 귀족회의의 주재자이고, 관등이 제 2관등인 伊飡 이상의 사람이 지명된다(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1 古代篇』<一潮閣, 1985, pp.224~225>).

197) 『三國史記』(卷九 新羅本紀 第九 景德王條) 「四年春正月 拜伊飡金思仁爲上大等」.

198) 명문에 「夫只山村」이라 하여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나 『三國史記』(卷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條)에서 「多支縣 本夫只」라 하였고, 多支縣은 지금의 전남 咸平지역이므로 아마 이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다(郭承勳, 『新羅 中代 末期 中央貴族들의 佛事活動』<『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1994, pp.360~361>).

199) 仁陽寺 金堂治成碑는 憲德王 2년(810)에 慶南 昌寧郡에 있는 仁陽寺의 금당을 완성하고 그 기념으로 세운 비이다. 여기에 「… 壬午年 京奉德寺 永興寺 天巖寺 寶藏寺 施 食二千七百十三石」이라 하여 802년에 수도 경주의 4개소의 사찰에서 곡식을 시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沈奉謹·李東注,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주변 정밀지표조사보고서』<동아대학교박물관, 2002, pp.15~20>).

다.

한편, 지방에서 중앙의 명령 없이 독자적으로 행해진 불사의 예는 752년의 上院寺梵鍾 제작을 비롯해, 754년의 景德王代의 화엄경사경과 9세기 이후인 804년의 禪林院梵鍾 제작, 833년의 蓮池寺梵鍾 제작 등을 들 수 있다.<표 2> 이러한 지방에서의 불사는 그 지방관리와 승려, 在地의 사람들이 참가한 結社에 의한 것이고, 그 목적의 대부분이 願主의 부모는 물론, 일절중생 모두가 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명문에 왕에 대한 문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2. 역사적 배경

일반적으로 불상을 조성함에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아미타불이든 미륵불이든 특정한 불상을 조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아 명문도 함께 새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불상에 새겨진 명문은 그 불상의 제작목적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본상에서는 「鴻巖仏」과 「父子王」이라 하여 왕을 위해 제작된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鴻巖仏」이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큰 巖佛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왕을 위한 불상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본존을 거대불로 조상하였다. 즉, 本像은 통일신라시대의 유일한 藥師三尊立像으로 古來로부터 왕을 위해 巨大佛이 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양 협시에 비해 본존을 더욱 크게 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父子王」의 의미도 역시 단순히 前代의 왕과 현재의 왕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父子」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상정된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삼국시대 중 신라시대부터 통일신라말까지를 上代, 中代, 下代로 나뉘, 下代는 宣德王 1年(780)부터 시작된다.²⁰⁰⁾ 이때부터 하대로 구분하는 이유는 중대까지 이어졌던 태종무열왕계에서 내물왕계로 왕족의 계통이 바뀌어 왕위계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대에서는 800년까지 후손이 태어나지 않거나,²⁰¹⁾ 短命이었던 이유로²⁰²⁾

200) 『三國史記』(卷十二 新羅本紀 第十二 敬順王條) 「國人自始祖至此 分爲三代 自初至眞德二十八王 謂之上代 自武烈至惠恭八王 謂之中代 自宣德至敬順二十王 謂之下代云」.

201) 선덕왕부터 새로운 하대가 시작되었으나 선덕왕은 후자가 없어 前王의 동생인 원성왕이 왕위를 이어받았다(『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 第十 元聖王條>「宣德薨 無子…今上大等敬信 前王之弟 德望素高 有人君之體 於是 衆議翕然 立之繼位」).

長子에 의한 왕위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성왕의 崩御 後, 그 아들인 애장왕이 800년에 왕위를 이어, 드디어 신라 하대에서 최초의 長子 왕위계승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내물왕계의 왕통에 의한 왕위계승 전통이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왕실에서는 새로운 왕족의 전통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은 왕실의 제사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시조묘제사는 炤知麻立干代까지 이어졌으나 그 이후로는 시조묘제사 대신 신궁에 제사를 지내게 된다.²⁰³⁾ 그러나 애장왕 2년(801)에는 480년간 중단되었던 시조묘제사를 지냈으며,²⁰⁴⁾ 그 다음해에는 신궁에 제사를 지냄으로서²⁰⁵⁾ 2가지의 제사를 모두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또 801년에는 五廟祭²⁰⁶⁾를 중대의 왕족에서 하대의 내물왕계 왕족으로 개편하여 행하였는데,²⁰⁷⁾ 오묘제는 自己世系 조상을 제사하는 家廟制이고, 家祖的 성격이 농후한 것이라 본다면 이때의 오묘제 개편은 내물왕계의 강화 또는 그 입장의 정당화를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²⁰⁸⁾ 아울러 전기한 三國史記의 오묘제 기사에 왕의 할아버지를 「皇祖」, 아버지를 「皇考」로 존칭하였는데²⁰⁹⁾ 이러한 존칭은 지금까지 신라왕실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 또한 왕실의 권위를 크게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²¹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父子王」에 담겨진 의미가 보다 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788년부터는 讀書三品科를 실시하여 관리의 채용에 있어 유교경전을 해독하는 시험이 행해졌으며²¹¹⁾ 이는 앞 시기와는 달리 본격적인 유교정

202) 원성왕은 즉위와 동시에 아들인 仁謙을 왕태자로 책봉하여 次代 왕위계승자로 확정시켰으나 그는 短命하였다(『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 第十 元聖王條〉「二月…立子仁謙爲王太子…七年春正月 王太子卒 諡曰惠忠」).

203) 井上秀雄, 『古代朝鮮史序說 -王者と宗教-』(寧樂社, 1978, p.73).

204) 『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 第十 哀莊王條) 「二年春二月 謁始祖廟」.

205) 『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 第十 哀莊王條) 「三年春正月 王親祀神宮」.

206) 신라왕실이 중국의 종묘제도인 오묘제를 수용하여 왕실의 선조제사로 한 시기는 무열왕 즉위 후인 645년이다(李文基,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改革의 政治的 意味」〈『統一新羅의 對外關係와 思想研究』, 백산자료원, 2000, p.265〉).

207) 『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 第十 哀莊王條) 「二年春二月…以始祖大王及王高祖明德大王 曾祖元聖大王 皇祖惠忠大王 皇考昭聖大王爲五廟」.

208) 金相鉉, 『新羅의 思想과 文化』(一志社, 1999, p.90).

209) 『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 第十 哀莊王條) 「二年春二月…皇祖惠忠大王 皇考昭聖大王」.

210) 濱田耕策, 「下代初期における王權の確立過程とその性格」(『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p.262).

211) 『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 第十 元聖王條) 「四年春 始定讀書三品以出身 讀春秋左氏傳 若禮記若文選而能通其義 兼明論語 孝經者爲上」.

치가 실행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왕실에서는 관리에게 요구하는 국가나 왕에 대한 충성심은 한층 강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미루어 보면 본상의 명문은 중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의 관리가 독자적으로 왕실을 위해 약사삼존입상을 제작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V. 造像目的 및 意義

1. 淨土往生の 기원

본상의 명문 내용은 정토왕생 기원의 성격이 강하였다는 것은 앞에 말한 대로이다. 그런데 정토왕생을 바라면서 왜 약사상을 조상하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同年 801년에 崩御한 소성왕을 위해 왕실에서 행해진 아미타상 제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경주 東北 30리에 있는 暗谷村 북쪽에 위치하는 鑒藏寺는 元聖王의 아버지인 明德大王이 叔父 波珍湊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찰이다.²¹²⁾ 이런 鑒藏寺에 801년, 소성왕의 비인 桂花王后가 죽은 소성왕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아미타상을 제작 봉안하였다.²¹³⁾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점을 감안하면, 왕실에서 행했던 대대적인 불사²¹⁴⁾는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것은 확실하며, 본상도 이것과 관련해서 제작되어졌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통일신라에서는 동시에 각각 다른 존상을 제작하는 예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를 들면, 김지성이 어머니를 위해 미륵보살상을, 아버지를 위해 아미타여래입상을 제작한 예²¹⁵⁾와 김대성이 전세부모를 위해 석굴

212) 『三國遺事』(卷三 塔像 第四 鑒藏寺彌陀殿條) 「有鑒藏寺 第三十八元聖大王之考大阿干孝讓 追封明德大王之爲叔父波珍湊追崇所創也」.

213) 『三國遺事』(卷三 塔像 第四 鑒藏寺彌陀殿條) 「昭成 一作聖 大王之妃桂花王后爲大王先逝… 思所以幽贊冥休 光啓玄福者…召彼名匠 教造彌陀像一軀 并造神衆以安之」.

214) 『鑒藏寺 阿彌陀如來造像事蹟碑』(801년) 「…中宮…身罔極 而喪禮也 制度存焉 必誠必信 勿之有悔 送終之事…密藏 鬱陶研精 寤寐求之 思所以幽贊冥休 光啓玄福者西方…府之淨財 召彼名匠 各有司存就於此寺 奉造阿彌陀佛像一…見真人於石塔東南崗上之樹下 …」.

215) 『三國遺事』(卷三 塔像 第四 南月山條) 「金堂主彌勒尊像火光後記云 開元七年己未二月十五

암을, 현세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창건한 예,²¹⁶⁾ 남백월산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같은 날 동시에 현신성불을 이루고 각각 미륵상과 아미타상으로 봉안된 것²¹⁷⁾ 등이다. 이것은 통일신라 불상제작의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본상 즉 약사상과 아미타상을 같은 해에 동시에 제작되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럼, 본상의 경우,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는 약사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본래, 약사상은 약사경²¹⁸⁾에 의거하여 만들어 지기 마련이며, 당시는 玄奘에 의한 新譯經에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²¹⁹⁾ 약사경 역시 650년에 현장이 번역한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에 의거했다고 추측된다. 실제로 7세기에 활약한 義寂²²⁰⁾의 저술 중, 『梵網經菩薩戒本疏』에는 48輕戒의 주석에 약사경이 인용되어져 있고,²²¹⁾ 현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율서에 약사경이 인용된 것은 그 정도로 약사경의 내용이 당시, 신라사회의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²²²⁾ 예를 들면,

日 重阿浪全忘(金志)誠 奉爲亡考仁章一吉干(浪)亡妃觀肖里夫人…亡妣觀肖里夫人 古人成之…仍造石彌陀一軀 奉爲亡考仁章一吉干(浪) …」.

216) 『三國遺事』(卷五 孝善 第九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條) 「乃爲現生二親 創佛國寺 爲前世爺孃創石佛寺」.

217) 『三國遺事』(卷三 塔像 第四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條) 「… 村有二人 其一曰努盼夫得…其一曰怛怛朴朴…見盼坐蓮臺 作彌勒尊像…朴朴又浴 亦如前成無量壽 二尊相對儼然…寺成 更塑彌勒尊像 安於金堂 額曰 現身成道彌勒之殿…額曰 現身成道無量壽殿 …」.

218) 약사경은 다음과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漢譯되었다.

제1차는 東晉(307~335年頃)의 帛尸梨蜜多羅에 의해 『佛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이, 또는 宋(大明元年<457>)의 慧簡이 『藥師琉璃光經』을 譯經하였다는 2가지 설이 있다.

제2차는 隋(大業12年<616>)의 達摩笈다가 『佛說藥師如來本願經』을, 제3차는 唐(永徽元年<650>)의 玄奘이 『佛說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을 譯經하였으며, 마지막인 제4차는 唐(神龍3年<707>)의 義淨이 『佛說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을 譯經하였다.

219) 650년에 원효와 의상이 현장의 교학을 사모하여 입당을 시도했던 사실은 이 무렵 현장의 새로운 학풍이 신라에까지 크게 불어오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 준다. 특히 648년에 번역된 『瑜伽師地論』이 1년만에 신라에 전해졌던 예로 볼 때 신역경론의 대부분이 곧 신라로 전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金相鉉, 『新羅 法相宗의 成立과 順璟』 <전게서, pp.303~304>) 또, 고려의 兢讓이 “현장법사가 서역에 갔다가 돌아와 金言을 번역, 貞元이래 新本經論이 점점 많아졌다”고 한 것으로 보아 (金相鉉, 『新羅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1991, p.250>) 현장이 번역한 경론이 신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약사경도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다.

220) 의적의 傳記가 없어서 그의 상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富貴原章信은 『日本唯識思想史』(大雅堂, 1944, pp.73~75)에서 의적은 처음에는 화엄종의 의상의 제자였다가 후에는 입당하여 현장의 교학을 연구했다고 한다.

221) 崔源植, 『新羅菩薩戒思想史研究』(民族社, 1999, pp.161~163).

222) 통일신라사회에서는 국왕에서부터 일반민중에 이르기까지 보살계가 널리 유포, 受持되어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신라인들이 唐의 赤山院에서 誦經의식을 할 때 대중이 藥師琉璃光佛의 名號를 칭하였다고 한다.²²³⁾

현장역경에 의하면 藥師琉璃光淨土는 아미타정토와 같기 때문에 약사정토로의 왕생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정토로의 왕생과 正法의 聽聞을 원하더라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만약 약사여래의 名號를 들으면, 임종 시 八大菩薩이 하늘에서 날아와서 이런 사람들의 行先을 나타내고, 아미타정토의 衆寶華 안에 自然化生하거나 또는 天上에 태어날 것을 설하고 있고,²²⁴⁾ 특히 약사여래가 아미타정토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한다.²²⁵⁾ 그래서인지, 통일신라시대의 사방불에서는 西面의 아미타불의 背後인 東面에는 약사불이 표현되어져 상호보완적 성격²²⁶⁾을 사면불의 구성에 있어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唐代의 敦煌莫高窟 12窟과 205窟 등에 아미타정토와 약사정토가 같은 窟의 南北 벽에 同様の 構圖와 色調로 그려져 있는 예와 상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²²⁷⁾

따라서 본상은 왕실에서 선왕을 위해 아미타상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서방극락에 가는 것에 결정되지 않은 자를 약사여래가 인도한다는 뜻으로 특별히 약사상을 안내자 역할로서 입상으로 제작하였다고 추정된다. 본래, 약사유리광정토의 약사삼존상의 본존은 좌상이다.²²⁸⁾ 그런데 『觀無量壽經』에 의하면 아미타가 내영할 때 선 자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²²⁹⁾ 이와 같이 여래가 서 있는 것은 행동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²³⁰⁾ 그러므로 來迎하여 인

졌다. 따라서, 계율에 의한 생활이 이뤄지고 그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고 추정된다(崔原植, 『新羅의 菩薩戒 受容과 그 流布』 <전계서, pp.64~65>).

223)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卷二 開成四年<839>十一月條) 『新羅誦經儀式 大唐喚作念經…導師唱云 南無十二大願 大眾云藥師琉璃光佛 導師云 南無藥師 也大眾同音云 琉璃光佛…』.

224)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大正新脩大藏經』第十四卷 經集部 一) 『琉璃爲地 金繩界道 城闕宮閣軒窓羅網皆七寶成 亦如西方極樂世界 功德莊嚴等無差別…以此善根願生西方極樂世界無量壽佛所 聽聞正法而未定者 若聞世尊藥師琉璃光如來名號 臨命終時有八菩薩 乘神通來示其道路 卽於彼界種種雜色衆寶華中自然化生 或有因此生於天上 …』.

225) 永井信一, 『中国の藥師像』(『佛教藝術』159, 1985, p.51).

226) 김혜완은 약사신앙이 서방극락 정토왕생신앙의 보완적 성격이 있다고 한다(김혜완, 전계 논문 <p.319, pp.329~331>).

227) 永井信一, 전계논문(pp.56~59).

228) 앞의 주 13번 참조.

229) 『觀無量壽佛經義疏卷下』(劉宋西域三藏量耶舍譯 『大正新脩大藏經』第三十七卷 經疏部 五) 『佛立空中二聖侍立 三聖立像斯爲明據』.

230) 長岡龍作, 『初期觀經變相圖における來迎表現の諸相』(『日本における繪畫・彫刻・工芸各分野のモチーフの交流に関する調査研究』, 昭和六三~平成三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一般研究 A)研究成果報告書, 1991年 3月, pp.29~30).

도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입상으로 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K C I

2. 왕을 위한 長壽의 기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약사상은 정토왕생과 연결되는 불상이지만 그와 동시에 현세이익적인 불상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특히 약사경에 장수를 위한 『續命法』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²³¹⁾ 따라서, 본상의 조성목적에는 왕을 위한 장수의 기원도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전대 왕인 소성왕이 즉위 후 1년이 채 안 되어 죽고 젊은 나이의 애장왕이 즉위한 것에서 비롯된다. 즉, 이 즉위는 신라 하대 최초의 長子 왕위계승의 전통의 확립이므로 즉위한 현재 왕에 대한 장수 기원이 어느 시대보다 높았을 것이다.²³²⁾

실제로, 왕의 장수를 위해 행해졌던 불사의 예는 많이 볼 수 있다.<표 3> 특히 977년의 廣州郡 校里磨崖藥師像의 명문²³³⁾은 황제의 장수를 기원한 것으로 왕의 장수를 의도한 약사상의 조상이 고려시대 이후에도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3> 왕의 長壽에 관한 佛事의 예

231) 『佛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佛說灌頂經』卷 第十二<『大正新脩大藏經』第二十一卷 密教部 四>) 『求長壽得長壽…七日七夜齋戒一心 受持八禁六時行道…亦勸懸五色續命神幡…續命幡燈法則云何…然燈續明救諸生命散雜色華燒衆名香』.

232) 소성왕은 사신이 중국에서 왕의 책봉을 받아 돌아오는 도중에 죽어 결국 중국의 책봉조차 받지 못하였다. (『舊唐書』<卷一百九十九 上 列傳 一百四十九 東夷 新羅國條>『貞元十六年 奉詔冊臣故主金俊邕爲新羅王…冊使韋丹至中路 知俊邕薨 其冊却廻在中書省』). 그러므로 방금 즉위한 젊은 왕에 대한 장수기원을 보다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233) 태평2년의 연대는 이 불상의 조성시기가 아니라 중수 시기이다(金春實, 『河南市 校山洞 <太平2年銘 磨崖藥師如來坐像>의 造成時期 검토』 『미술사 연구』 16, 2002).

705년 以後	『三國遺事』卷3 第4 塔像 臺山五萬眞身條	以此華藏寺 爲五臺社之本寺 堅固護持 命淨行福田 鎮長 香火 則國王千秋 人民安泰…
706년	『皇福寺 金銅舍利函記』	以下以此福田 上資神文大王 神睦太后 孝照大王 代代聖 廟 枕涅槃之山 坐菩提之樹 隆基大王 壽共山河同久 位與 軋川等大 千子具足 七寶呈祥…
719년	『甘山寺 彌勒菩薩像造像記』	開元七年己未 二月十五日 重阿浪金志誠 奉爲亡考仁章一 吉浪…敬造甘山寺一所 石阿彌陀像一軀 石彌勒像一軀… 上資國主大王 履千年之遐壽 延萬福之鴻休
846년	『法光寺石塔誌』	會昌六年丙寅 九月 移建兼脩治 願代代檀越 生淨土 今上 福命長遠…寺檀越成德大王 典香純
977년	『廣州郡 校里 磨崖藥師佛造像記』	太平二年丁丑七月廿九日 古石 佛在如賜乙 重脩爲今上 皇帝萬歲願

이상과 같이 본상은 왕실이 소성왕을 위해 제작한 아미타상에 응하여 정토사상을 포함함과 동시에 애장왕을 위해 특히 장수를 기원하는 현세이익적 의미를 포함하는 가장 어울리는 상으로서 제작된 最古의 약사삼존입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작 사정을 가지는 본상의 조각사적 의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방어산 약사삼존상은 명문에서 그 제작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동시에 통일신라시대의 현존하는 약사상 중 最古의 약사삼존입상이다. 본상에 대한 조상목적과 배경을 명문을 통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본상은 통일신라 하대의 중앙과 지방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지방관리가 왕을 위해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명문의 「鴻巖仏」은 왕을 상징하는 「鴻」자를 併記하여 왕을 위해 암불을 조상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父子王」을 위해 조성한다고 하여 죽은 소성왕의 정토왕생을 기원함과 동시에 현재 애장왕의 장수기원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로서 해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거대 약사삼존입상을 조상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願主는 「奈末」의 관등을 가진 지방의 관리이고, 통일신라가 중앙집권적 전제정치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중앙에서 함안군으로 파견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함안군은 신라가 낙동강을 넘어 서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시되었던 지역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한 후에도 군통을 배치하거나 군사를 주둔시키는 등 중앙정부를 방어하는 중요 지역으로 생각되어져 있

있던 것으로 추측되었다. 따라서 함안군에 파견된 중앙 관리의 정치적 입장은 높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왕을 위하여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앙귀족 또는 관리가 왕을 위한 불사를 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행해진 것은 본상이 유일한 예이고, 이것이 본상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圖의 出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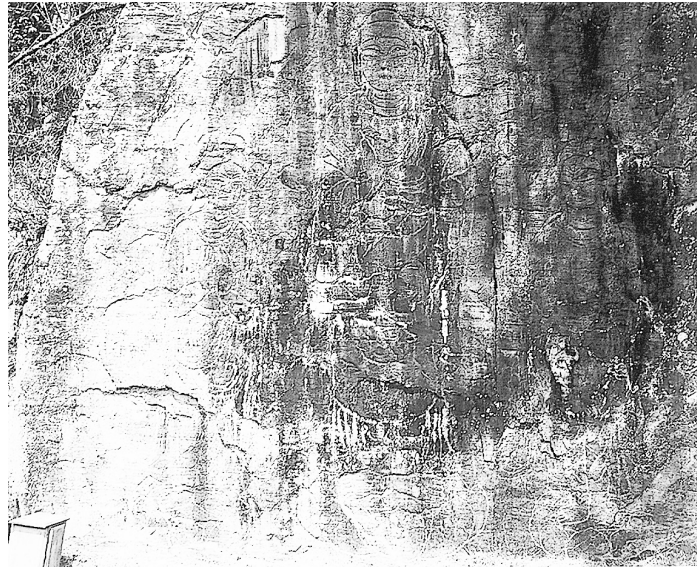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 사용한 圖는 다음의 출전에 의한 것이다.

圖13, 15, 19 『국보 2』(예경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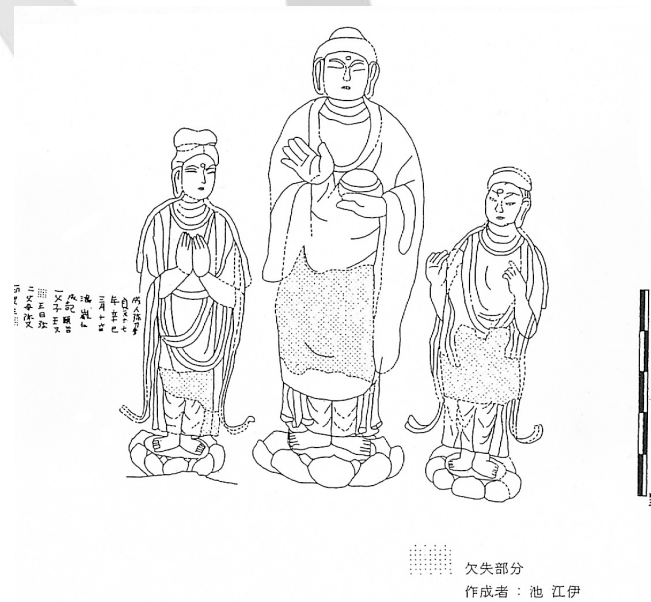
圖16, 17 『국보 4』(예경 1984)

圖14, 18 강우방, 『한국불교조각의 흐름』(대원사, 1995)





<圖1> 防禦山藥師三尊像 함안군 방어산
총면적 高590×幅700cm 통일신라(801년) 보물159호



<圖2> 방어산약사삼존상 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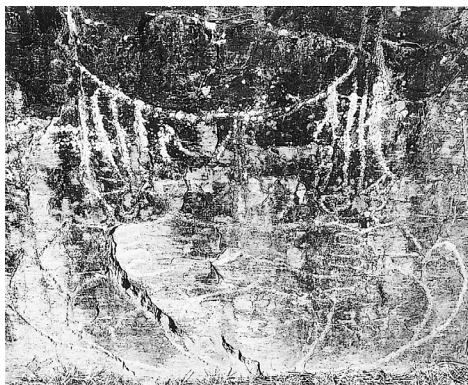
<圖3> 방어산약사삼존상 본존부분 頭部



<圖4> 방어산약사삼존상 본존부분 身部



<圖5> 방어산약사삼존상 본존부분 印相



<圖6> 방어산약사삼존상 본존부분 臺座



<圖7> 방어산약사삼존상 좌협시
總高3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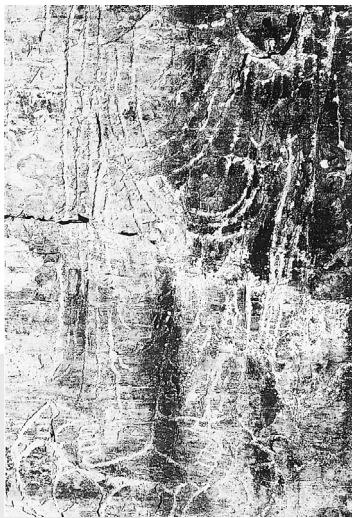
<圖8> 방어산약사삼존상 좌협시부분 頭部



<圖9> 방어산약사삼존상 좌협시부분 身部



<圖10> 방어산약사삼존상 우협시
總高332cm



<圖11> 방어산악사삼존상
우협시부분 天衣



<圖12> 仙桃山磨崖三尊立像 경주 선도산
本尊像高685cm 삼국시대말~
통일신라초 보물62호



<圖13> 斗垞里磨崖三尊立像 경주 울동
本尊像高332cm
통일신라(8세기 후반) 보물122호



<圖14> 金銅藥師如來立像 미국
보스톤박물관
總高32.4cm
통일신라(8세기)



<圖15> 掘佛寺址東面藥師如來坐像 경주
동천동 굴불사지
總高206cm
통일신라(730~750년) 보물121호



<圖16> 曾村里石造藥師如來坐像
경북 상주 용화사
像高168cm 통일신라(9세기)
보물120호



<圖17> 甘山寺石造阿彌陀如來立像
국립중앙박물관
總高174cm 통일신라(719년)
국보82호



<圖18> 金銅三尊板佛 안압지출토
국립경주박물관소장
總高27cm 本尊高16.5cm
통일신라(680년경)



<圖19> 骨窟庵磨崖如來坐像
경주 남산
總高400cm 통일신라(9세기)
보물581호



<圖20> 방어산약사삼존상의 銘文
함안군 방어산
字徑5~7cm 통일신라(801년)